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책일: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6호 현대불교
2009년 4월 8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구정물이 나올 듯하면 그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세요

광주 지역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 알아 봐야 할 것은 '불교라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 생명들의 근본 자체가 불(佛)입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생명의 근본, 불(佛)! 만물만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오고 감이 없이 통할 수 있고, 말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이렇게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인연해서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뜻을 교(敎)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새들대로 말을 하고 서로 통하고, 곤충들은 곤충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 통하는 것이 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언어도 불지 않는 자체가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해서 진리인 것입니다. 머리 깎은 스님네들이나 불제자들만 공부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뜻은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왜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죠. 우리 몸 안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한데 뭉쳐진 이 자체를 육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별성이 움직여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가 우주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성이라고 해도 되고, 모두가 이 몸 안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자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그 자생중생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서로 뭉쳐진 것이고, 영혼의 뿌리와 더불어 남녀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끌고 다닌다는 그 자체를 아시고 모든 것은...

보십시오! 나무 썩은 말입니다. 나무 썩어 제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나무 썩은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썩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제 뿌리를 믿어야만 이 뿌리에서 지분 수분 철분 모든 것을 귀찮이켜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야 나무는 푸르게 살 수 있고 또 그 썩은 태양열과 공기를 흡수해서 내려보내다 이겁니다. 이 울리고 내리고, 즉 이렇게 모든 것이 귀찮이 해서 정맥 동맥이 돌아야 해 사람이 밝게 움직여질 수가 있고 자유권을 얻을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겠군요. 사람이 모두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즉 말하자면 이를 해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천이통은 듣는 거, 천

안통은 보는 거, 신즉통은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는 거, 타심통은 남의 속을 훤히 알 수 있는 거, 속명통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 속에서는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입니다. 바깥으로 탁 나와야 내 몸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거니와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몸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들쭉는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 바깥에 나오면 고기들이 죽듯이, 그래서 물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도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각자 여러분의 통신 안테나를 먼저 세워 놔야 통신을 받을 수도 있고 통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더 얄라. 너무더 깨쳐라. 너무더, 바로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서로 상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진리를 파악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시점의 어려운 과정을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밥을 대신 먹어서 배부라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그 오묘한 법을, 그 도리를 모른다면 불제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불제자가 아닌 불제자든 전부 불제자지 불제자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 안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고 갑니다. 한 군데서만 파업이 일어나도 여러분 몸뚱이는 병이 들고 쓰러질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속의 그 자생중생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집합소이며 관리인이며 심부름꾼 즉,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는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일을 해서 벌었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내 거다. 만일 이렇게 하시고 극대시는대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 물 한 컵을 잡수실 때도 혼자 자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하고 혼자 산다고 하고 혼자 일을 해서 벌었다고 하고



그림 · 최주현

혼자 망했다고 하는데, 모든 일체를 다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 모습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을 선장으로 삼아서 잘못 내든 잘 내든 그 마음내는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내면세계에 보라. 내면세계에 모든 것을 놓을 때에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인연이 돼서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구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움직여야 여러분 몸뚱이가 건강할 거고,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물리가 터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뭇 줄 알아야 여러분이 깨쳐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서, 응신으로서 각계각층의 중생들에게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무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내 뿌리부터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썩어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하고 그 썩어 딱 나무의

썩을 믿거나 딱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이름을 믿거나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거나 이런다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자기 나무에 에너지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체 마음이 한꺼번에 들고 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도 낱고 은하도 낱고 별성도 낱고, 별이 아주 커지면 불덩어리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잉태해서 어린애를 생산하고 죽고 살고 하는 생사윤회와 결부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고 작용을 하는 대자연의 진리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바로 생활이 있고 생활이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모든 세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 했더라면 모두 무효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세상도 있고 종교도 있고 역할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모두 이런 것이요, 여러분이 있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다 말았더니 앞서 한 건 잊어버려서 못하고, 허허하..., 앞으로는 생각 안 나서 못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로 들어서 바로 말을 할까요? (대중 박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내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낼 때에 잘 냈는지 못 냈는지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관습에 의해서 막히고, 윤회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 등, 모두에 얽히고 설켜서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녀들이 무지하게 괴롭히면 괴롭워서 애를 쓰고, 부부기간에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허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고장이 난 것을 마음으로 고쳐야지

26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중 정 자운 청봉 대종사
총무원장 월산 해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종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 입증하시던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에(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여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인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남비벽이 심해 빛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전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교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씨레봉 아래 1100고지 토크에서 15년간 고행

서진암 선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매일경제신문 인체영양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뎡충이라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식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제 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4. 사다리나비라
2. 사물 다루는법	5. 오공양작법
3. 천수비라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선화무, 해원무, 락춤
□ 연구반 : 산청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현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